

믿음의 싸움을 하며 예수와 만난 사람들 * 3/26(금) 유다서

인사 (1-2)

주제 믿음의 싸움을 하라! (3)

논증 거짓교사들은 - 구약 인용 (4-19)

권면 믿음을 지키라! (20-25)

Before 줄치며 읽기

참 그리스도인의
표지들은 무엇입니까?

After 묵상하기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입니까?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유다서는 특정 수신인에게 쓰이지 않았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유다서 말씀을 읽고 회람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표지들을 읽으며 자가 점검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베드로후서에도 유다서의 말씀이 사용된 것을 보면, 짧지만

큰 유익이 있다고 여겨 필사하고 회람한 것으로 보입니다.

‘밖으로부터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1:4).

유사철학으로 거짓 가르침을 전파하는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신앙과 공동체를 파괴하는 언행을 일삼았습니다.

부도덕한 행실로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겼습니다(7-8).

애찬시간을 마치 방탕한 주연에 참석한 듯 행동했습니다(12).

당을 짓고, 육에 속했으며 성령 없는 자처럼 행했습니다(19).

그들은 마치 ‘이성 없는 짐승’ 같았습니다(10).

참고도서

백주년기념성서주석

두란노 HOW주석

현대성서주석

유다서는 <참 그리스도인의 표지>를 점검하라고 권합니다.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은 그리스도로부터 온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 새로운 존재로서 거룩한 삶을 지향합니다.

<믿음의 도>는 단번에 주어진 것입니다(3절).

무언가 ‘덧붙이는’ 이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1:3)”

<믿음의 싸움을 하며> 예수와 만난 사람들은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웁니다(20).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구원을 기억합니다(1, 25).

예수를 주로 인정하며, 성부 성자 성령을 인식하며 삽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자신을 지키고,

영생에 이르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립니다(4, 20-21).

말씀의 전통에 굳게 서서 거짓 가르침을 분별합니다(17-18).